

2025. 4. 21

소비재/플랫폼 Weekly

다이소, 1,000원짜리로 4조원 매출액 만들다

Analyst 오린아 _ 유통/화장품 lina.oh@ls-sec.co.kr

꼭 체크해야 할 업종 이슈

✓ 1,000원짜리로 4조원 매출액 만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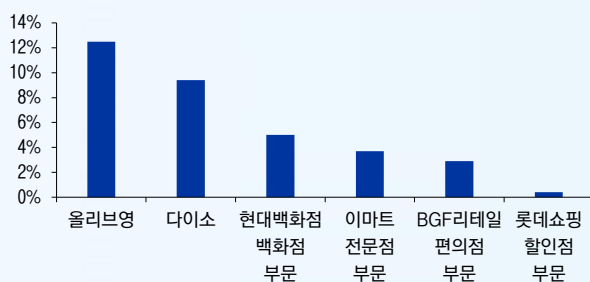
다이소의 2024년 매출은 전년대비 14.7% 증가한 3조 9,689억원, 영업이익은 41.8% 증가한 3,711억원, 당기순이익은 23.5% 늘어난 3,094억원을 기록. 매출총이익률과 판관비율도 각각 37.9%, 28.5%로 개선됐으며, 고물가·고금리 탓에 가성비비를 추구하는 소비 심리가 수요 확대를 이끈 것으로 보임. 2023년 말 점포수는 1,519개(직영점 1,022개)로 파악되며, 2024년에는 1,550개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카테고리 다변화에 집중해 대형점·직영점 중심의 출점 기조가 이어질 전망

✓ 2025년도 두자릿수 성장 전망

다이소는 최근 불황기에 맞춰 초저가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두자릿수 성장세를 지속. 외국인 관광객 매출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화장품 매출도 큰 폭으로 성장 중임. 이에 경쟁사들은 가격·상품력·서비스 등 전방위적인 역량 강화에 나서지 않으면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이번주 업종 코멘트/전망

그림1 2024년 주요 유통업체 사업 부문 영업이익률



자료: 각 사, LS증권 리서치센터

1,000원짜리로 4조원 매출액 만들다

다이소의 2024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4.7% 증가한 3조 9,689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1.8% 성장한 3,711억원, 당기순이익은 23.5% 증가한 3,094억원을 기록. 매출총이익률은 37.9%로 전년대비 0.8%p 개선됐고, 판관비율은 28.5%로 0.9%p 낮아짐. 고물가·고금리로 소비자들의 가성비 선호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2023년 말 기준 점포수는 1,519개로 전년대비 5.3% 증가했으며, 이 중 직영점이 1,022개 수준. 2024년에는 약 1,550개 수준으로 점포수 마감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됨. 카테고리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어 대형점·직영점 위주의 출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2025년도 두자릿수 성장 전망

다이소는 최근 불황 시기 주목할 수밖에 없는 초저가 제품들을 연달아 출시하며 두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해외직구 플랫폼이 품질·안전성 이슈로 주춤한 사이, 오프라인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됨. C커머스 상품과 달리 직접 기획·소싱을 통해 안정적인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점도 업종 내 차별화 요인으로 평가. 외국인 관광객 매출액이 지속 증가, 화장품 매출은 2024년에만 144% 성장. 대형마트·편의점, 오픈마켓 등 직접적인 경쟁사들은 가격 경쟁력과 상품 구성을 재정비해야 하며, 온라인 채널에서도 다이소의 배송 강화에 맞서 차별화 전략이 필수로 떠오르고 있음. 결국 전 유통 채널이 가격, 상품력,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림2 다이소 연간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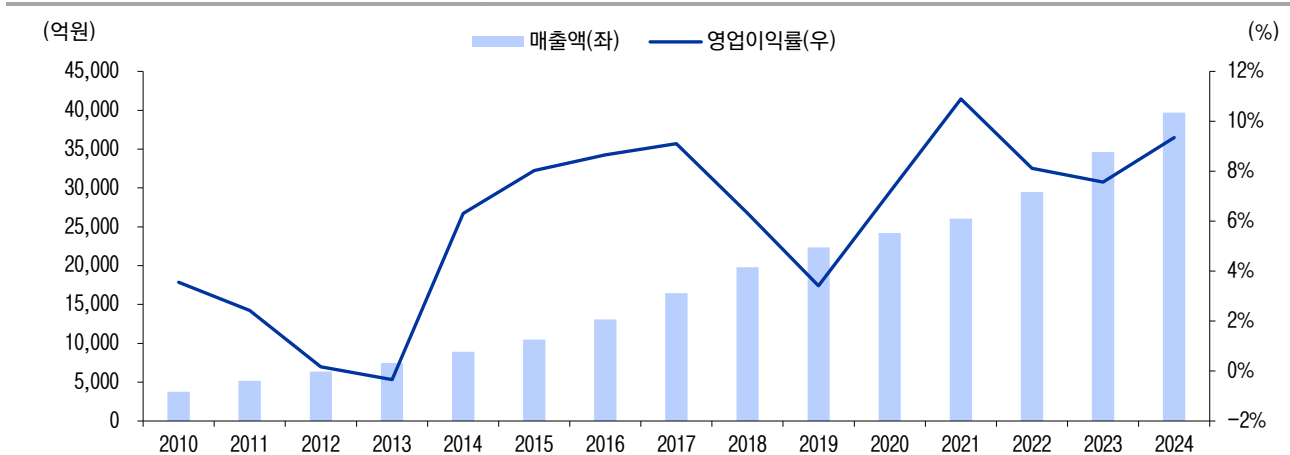
자료: 아성다이소, LS증권 리서치센터

1,000원짜리로 4조원 매출액 만들다

2024년 연간 영업이익률 9.4%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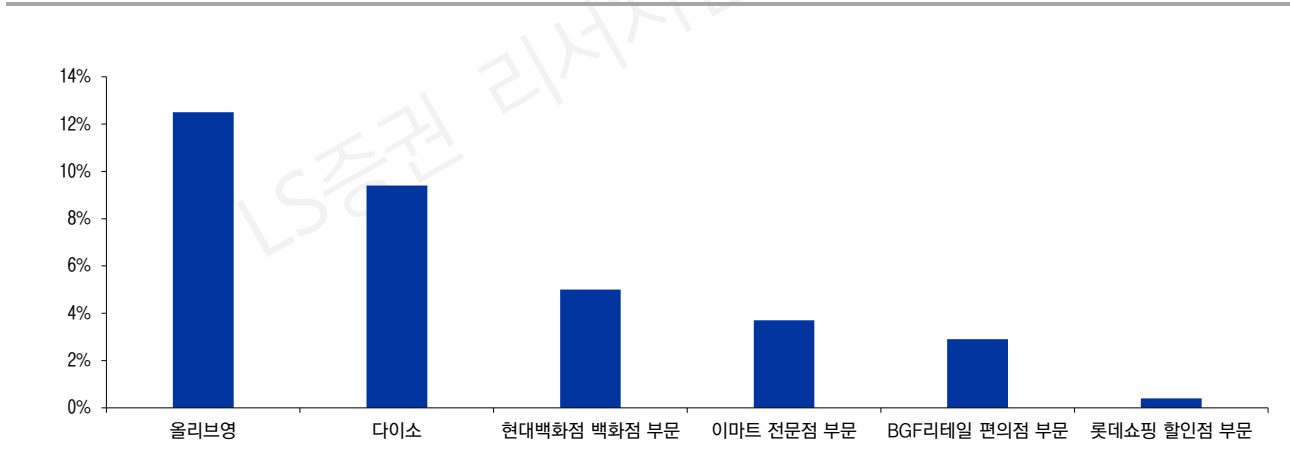
다이소가 2024년 실적을 공시했다. 2024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4.7% 증가한 3조 9,689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1.8% 증가한 3,711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23.5% 증가한 3,09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총이익률은 전년대비 0.8%p 개선된 37.9%을 기록했고, 판관비율은 28.5%로 전년대비 0.9%p 개선됐다. 유통업체 중 눈에 띄는 실적이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라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고려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요가 몰리고 있다. 2023년 말 점포수는 1,519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으며, 이 중 직영점은 1,022개다. 2024년은 1,550개 수준으로 점포수 마감이 추정된다. 최근 카테고리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대형점, 직영점 위주의 출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1 다이소 연간 실적 추이



자료: 아성다이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2024년 주요 유통업체 사업 부문 영업이익률



자료: 각 사, LS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도 두자릿수 성장 전망

다이소는 2022년말 리들샷, 2023년 11월 5,000원대 후리스, 2024년 5월 냉감의류, 2025년 3월 건강기능식품, 4월 르까프, 스케처스 티셔츠 및 양말 등 불황 시기 주목할 수 밖에 없는 가격 파괴 제품들을 지속해서 내놓고 있다. 이런 내용이 화자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케팅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올해 또한 두자릿수 성장이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커머스 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품질 및 안전성 문제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에서는 다이소가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 C커머스 상품과 달리 다이소가 직접 기획 및 소싱해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 또한 업종 내 차별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매출액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22년 다이소의 해외 카드 결제금액은 전년대비 300% 성장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130%, 지난해 50% 증가했다. 화장품 매출액은 2024년 144% 성장해 과거 면세점의 지위를 올리브영과 다이소가 이어받은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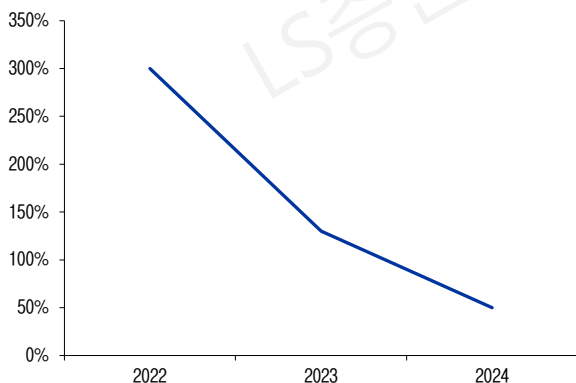
2025년 또한 초저가 제품 선호 지속, 외국인 쇼핑 수요 흡수, 카테고리 확장에 따른 성장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며, 기존 유통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과제를 안기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직접적인 경쟁사들이 가격 경쟁력과 상품 구성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온라인에서도 다이소가 최근 배송을 강화하고 있어 차별화 전략이 필수로 떠오르겠다. 결국 모든 유통 채널이 가격과 상품력,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야만 시장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3 다이소 주요 대란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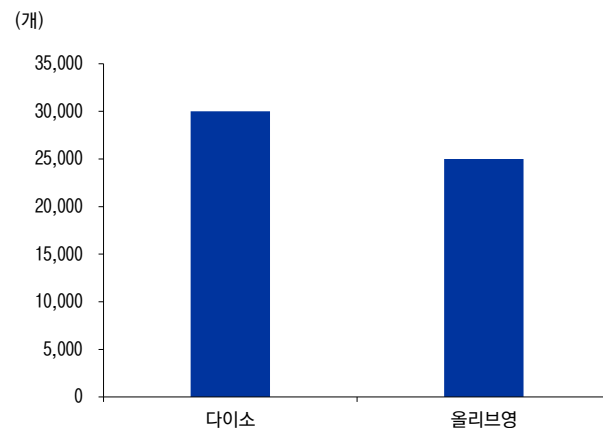
자료: 다이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외국인 카드결제액 성장률 두자릿수 수준



자료: 다이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취급 SKU(2024년 기준)



자료: 다이소, LS증권 리서치센터

표1 국내 소비재/플랫폼 주간 수익률

	현재가 (pt, 원)	시가총액 (억원)	수익률 (%)						P/E			P/B		
			1W	1M	3M	6M	12M	YTD	2024	2025E	2026E	2024	2025E	2026E
코스피	2,483	20,339,574	2.1	-4.9	-1.6	-4.3	-5.7	3.5	-	-	-	-	-	-
코스피 대형주	2,472	16,960,088	1.9	-5.1	-1.8	-4.5	-6.2	3.5	-	-	-	-	-	-
코스닥	718	3,683,967	3.2	-3.7	-1.0	-4.7	-16.1	5.8	-	-	-	-	-	-
코스피 중형주	2,751	2,409,029	3.2	-5.4	-0.7	-4.3	-2.5	3.5	-	-	-	-	-	-
코스피 소형주	2,169	870,313	2.8	-0.8	0.6	-1.8	-5.2	3.6	-	-	-	-	-	-
유통														
코웨이	76,600	55,584	8.2	-10.5	-4.3	15.4	36.3	14.5	9.4	9.0	7.8	1.8	1.6	1.4
호텔신라	38,600	15,150	-0.3	-0.8	-1.8	-14.4	-32.5	4.6	-265.2	43.8	19.8	2.5	1.4	1.3
BGF 리테일	105,000	18,148	1.7	-0.1	0.9	-6.2	-16.4	2.4	9.5	8.8	8.3	1.5	1.4	1.2
GS 리테일	14,090	11,780	-0.6	-3.6	-11.1	-33.9	-26.1	-14.6	24.7	7.8	6.5	0.3	0.3	0.3
롯데쇼핑	64,800	18,331	2.7	0.9	21.1	0.9	-0.9	19.8	31.9	8.2	6.6	0.2	0.1	0.1
신세계	153,900	14,844	6.1	4.3	15.6	2.3	-4.5	15.7	7.2	7.6	6.2	0.3	0.3	0.3
이마트	87,600	24,419	1.4	9.0	32.9	39.7	43.1	38.2	-255.2	11.9	8.6	0.2	0.2	0.2
현대백화점	57,700	13,057	1.9	0.0	21.5	24.2	15.9	22.1	140.2	6.2	5.4	0.3	0.3	0.3
SK 네트워크스	4,110	9,095	3.1	-6.2	-2.3	-20.4	-24.9	-1.0	7.9	14.4	12.5	0.4	0.4	0.4
인터넷														
NAVER	187,500	297,069	2.5	-10.3	-10.3	6.1	3.8	-5.7	17.1	15.5	13.5	1.1	1.0	0.9
카카오	39,000	173,110	0.0	-11.4	7.1	1.3	-20.6	2.1	54.7	45.3	34.3	1.7	1.6	1.5
게임														
크래프톤	386,000	184,937	2.4	10.0	13.0	13.4	48.5	23.5	18.4	16.2	14.5	2.7	2.2	1.9
넷마블	44,000	37,820	7.6	9.1	-6.4	-21.4	-21.6	-14.9	22.7	25.0	17.1	0.7	0.7	0.7
엔씨소프트	138,500	29,838	-4.0	-15.2	-23.8	-28.3	-18.0	-24.4	91.1	20.5	13.0	0.9	0.8	0.8
펄어비스	33,750	21,684	6.3	11.6	19.1	-7.3	21.8	21.8	367.5	16.2	22.7	2.8	2.3	2.0
카카오게임즈	13,590	11,262	2.2	-12.8	-18.3	-17.2	-34.5	-17.0	-59.9	-979.3	31.3	0.8	0.8	0.8
더블유게임즈	54,300	11,672	2.3	8.6	6.9	5.4	33.6	0.7	6.9	6.4	5.9	1.1	0.9	0.8
NHN	21,100	7,125	0.0	15.4	11.8	32.5	-5.6	19.6	-8.6	12.5	9.3	0.4	0.4	0.4
웹젠	13,130	4,543	-0.7	0.8	-3.2	-20.0	-21.7	-4.2	8.0	9.6	7.1	0.6	0.5	0.5
컴투스	39,200	4,993	1.0	-13.9	-11.3	5.1	1.4	-15.7	48.4	14.8	11.9	0.4	0.5	0.5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115,400	67,501	6.2	3.1	-7.4	-7.8	-21.2	10.1	11.5	23.9	20.7	1.5	1.4	1.3
LG 생활건강	310,500	48,495	-0.6	-4.5	2.5	-11.0	-18.6	1.8	19.5	20.2	18.1	0.9	0.9	0.9
실리콘투	33,850	20,707	8.7	28.5	-0.2	-15.4	155.3	3.5	17.0	15.7	12.8	8.0	5.5	3.8
아모레 G	21,400	17,004	5.2	-0.2	-10.8	-9.1	-29.7	2.9	7.2	17.2	12.9	0.5	0.6	0.6
한국콜마	73,500	17,350	3.7	12.0	21.7	1.9	45.5	33.4	23.5	14.7	12.1	2.4	2.0	1.7
코스맥스	166,900	18,942	1.2	-8.1	-0.4	19.4	23.4	11.9	20.5	14.9	12.1	4.2	3.2	2.5
브이티	36,450	13,048	11.5	2.4	3.9	15.7	75.7	-8.9	15.5	13.2	11.1	6.5	4.2	3.1
코스메카코리아	48,700	5,201	7.7	10.1	-8.5	-35.3	23.9	-11.9	12.6	10.5	8.8	2.5	2.0	1.6
씨앤씨인터내셔널	33,600	3,365	7.2	-25.3	-16.4	-55.6	-59.8	-26.5	10.7	9.4	7.4	1.6	1.4	1.2
클리오	19,420	3,509	1.4	-5.7	6.4	-22.8	-36.2	12.9	0.0	11.1	9.3	0.0	1.3	1.2
한국화장품제조	52,800	2,393	-2.6	6.6	9.4	-37.4	103.1	2.1	0.0	0.0	0.0	0.0	0.0	0.0
아이패밀리에스씨	21,150	3,663	9.7	4.7	-21.5	1.2	-14.6	13.2	11.6	10.6	8.7	3.6	2.8	2.1
마녀공장	18,320	3,001	2.3	-3.4	2.5	-9.1	-3.9	25.4	0.0	0.0	0.0	0.0	0.0	0.0

자료: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5.4.18. 종가 기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오린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Buy (매수)	+15% 이상 기대	91.7%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pm 15\%$ 로 변경
	투자등급 3단계	Hold (보유)	-15% ~ +15% 기대	8.3%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4. 4. 1 ~ 2025. 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